

VOGUE girl

No.98

APRIL 2010
www.voguegirl.com
정가 5,500원

SPECIAL
EVENT

STYLE ORIENTATION SEASON 5

걸들의 스타일 코치 <보그 걸>이
서울과 부산의 캠퍼스로 찾아갑니다

ACCESSORIES TOUCH DOWN

투명, 프린지, 밀리터리...
올봄 액세서리 트렌드 리포트

SPRING 10 X LISTS

오가닉 드레스, 스프링 리더, 떠오르는 뉴 레이블...
올 봄 패셔너블한 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트렌드 키워드 10

SPARKLING STARS

박신혜 & 송중기
'가십 걸' 테일러 맘슨 &
제시카 스자르

SPRING BRIGHTENING

피부 속 조명을 환하게 켜는
스프링 브라이트닝 솔루션

COMPACT CONFIDENTIAL

도자기 피부 표현을 위한
컴팩트 파운데이션의 모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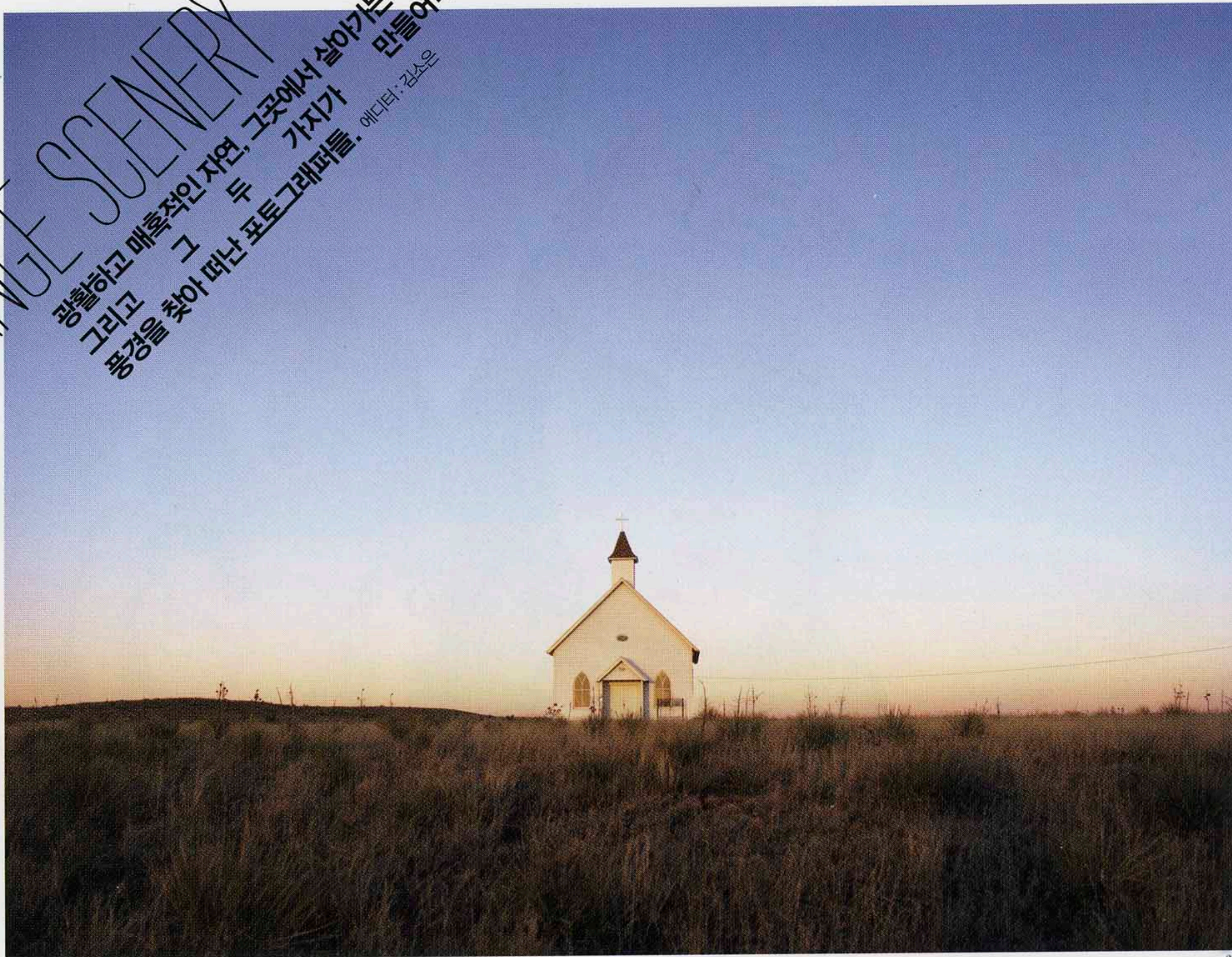
ISSN 1599-4945



9 771599 494006

STRANGE SCENERY

광활하고 매혹적인 자연,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,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평생을 찾아 떠난 포토그래퍼를. 에디터: 김소은



COURTESY OF BRYAN SCHUTMAAT

bryan schutmaat



who i am 나는 브라이언 슈마트. 27세이고, 미국 휴스턴에 거주하는 아티스트다. 현재는 사진 촬영에 집중하고 있다. 나는 '미국의 광활한 길'이란 주제로 서부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형적인 풍경과 인테리어, 고속도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촬영한다. **USA**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유로 사진을 찍기 위해 종종 여행을 떠난다. 때론 그저 방랑하기도 하는데, 가끔은 계획에 없었던 낯선 곳에서 나를 발견할 때도 있다. 미국에서 찾아낸 일상의 고요한 풍경들이 한국의 <보그 걸> 독자에게 아주 이국적인 풍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. 풍경 사진들은 대부분 오кла호마, 텍사스, 뉴멕시코주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한적한 지역에서 촬영했다.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사진을 찍으며 심플함을 유지하는 것. 특히 광활한 대지에 홀연히 서 있는 문명의 산물들과 마주할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함을 느낀다. 물리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과 그 주변에 산재한 인간의 공간을 조명하는 것이 내 촬영

여행의 가장 큰 주제다. **moment** 다른 시간,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딱히 어느 순간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. 가끔 여자 친구도 촬영 여행에 동행하는데, 여자 친구와 함께 보는 풍경이 우리를 더 가깝게 해주는 것이 참 좋다. **next place** 아직 그저 꿈이긴 하지만, 캐나다 대서양에 있는 뉴펀들랜드 지역과 그곳의 래브라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. 작년 여름에 그곳에 갔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행한 곳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이었다. 주제를 정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다시 방문하고 싶다. www.bryanschutmaat.com